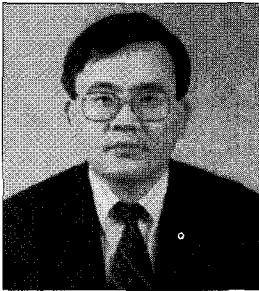


걸프전 환경테러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세 계 석유의 대부분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아랍 에미레이트, 이란, 오만,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생산된다. 이 페르시아만에서 1990년 8월 2일 이라크는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하였다.

유엔에서 몇 개월간 협상이 오가다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선두로 한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하였고, 3월 3일에는 마침내 쿠웨이트를 이라크 점령으로부터 수복하였다. 쿠웨이트 수복 과정에서 이라크와 유엔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오가게 되었고 이 전투는 많은 재산과 생명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기록될 만한 커다란 환경재난을 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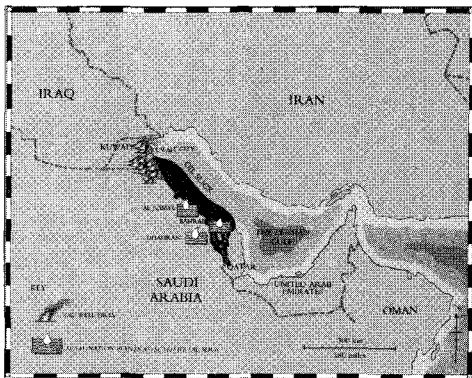
1991년 1월 25일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쿠웨이트의 송유 부두를 폭격하여 100만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원유를 바다로 유출시켰다. 이것은 기름으로 페르시아만을 오염시키고 세계 석유시장을 뒤흔들어 이를 서방국가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라크의 의도적인 행위였다. 이때 유출된 원유의 양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선 사고로 기록된 아모코카디즈 사건의 22만톤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양이다. 파괴된 송유 부두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해안선 450여 킬로미터를 뒤덮었다.

페르시아만은 폐쇄된 해역이기 때문에 유출된 원유는 외해로 쉽게 이동하지 않고 만내에 오랜 기간동안 정체하여 피해를 증폭시켰다. 더구나 다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나 유화제를 뿌리는 등 사고 발생 초기에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지만 페르시아만의 원유 유출은 전쟁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취할 수 없었다. 걸프전의 기름 유출은 폐쇄된 해역에 최대 규모의 원유가 유출된 후 어떤 방지 대책도 취해지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였다.

페르시아만 해안선에는 산호초와 모래 해변 그리고 습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특히 습지는 모래와 개펄이 혼합된 '사브카'라는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어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며 수많은 종의 식용 어류와 무척추동물 그리고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동의 독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이곳에는 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으며 사프카의 다양한 생물상과 높은 생산성은 페르시아만 해양생태계에 좋은 먹이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 파괴된 송유 부두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해안선 450여 킬로미터를 뒤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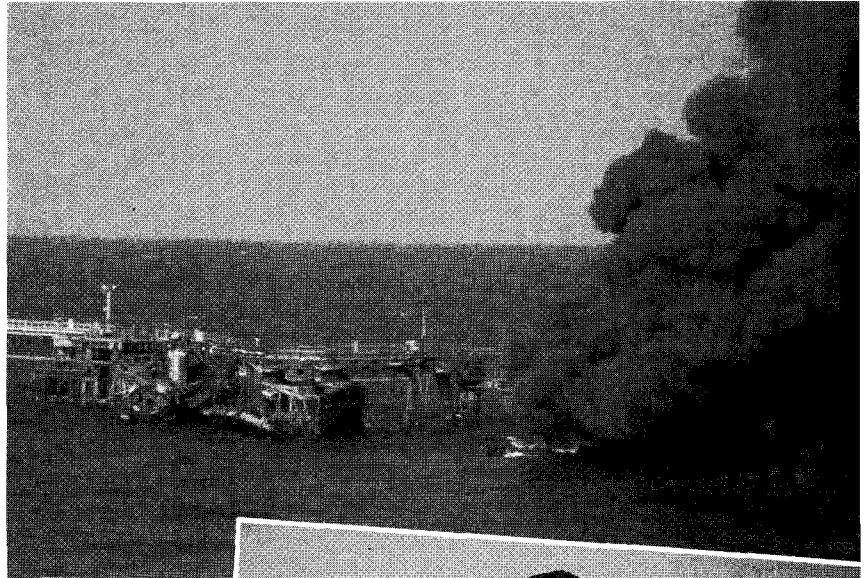
다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나 유화제를 뿌리는 등 사고 발생 초기에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지만 페르시아만의 원유유출은 전쟁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취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걸프전의 기름 유출은 폐쇄된 해역에 최대 규모의 원유가 유출된 후 어떤 방지 대책도 취해지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였다.

걸프전 이후 산호초와 모래 해변은 기름으로 뒤덮혔고 사프카는 죽음의 늪으로 변하였다. 먹이를 잃어버린 물새들은 떼죽음을 당하였으며 페르시아만의 해양생태계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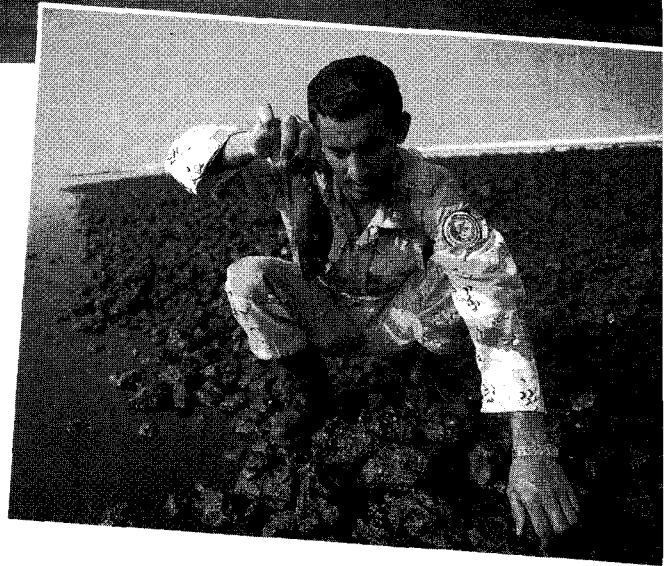
또한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의 90% 이상을 페르시아만 해수를 담수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하여 주베일과 다란 그리고 바라드 등에 건설된 해수 담수화 공장은 더 이상 식수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폐쇄되었고 이곳 주민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걸프전은 페르시아만 기름 유출 외에도 쿠웨이트 유전 총 600 여개 중 500여개가 폭격이나 방화로 불길에 휩싸이는 피해도 가져왔다. 걸프전 당시 매일 불타는 석유량이 460만 배럴에 달했으며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새들이 죽고 가로수가 시들어 갔으며 사람들이 질식사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배출된 매연은 인접 국가에까지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전쟁이 끝난후 이때 발생한 불길을 잡는 데 2년이나 걸렸다.

파괴된 유전으로부터 나온 많은 양의 기름이 땅위에 범람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기름으로 범벅된 강과 호



▲ 걸프전 당시 기름이 페르시아만으로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은 기름으로 뒤덮혔고 산호초들은 심한 피해를 입었다.



▶ 한 병사가 기름에 흠뻑 젖은 고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수를 이루었으며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뒤덮었다. 이것은 육상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고 기름은 토양층 깊숙히 스며들었다. 육지에서 기름 범람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는 이때 발생한 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에 비해 비록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지만 가장 오랜기간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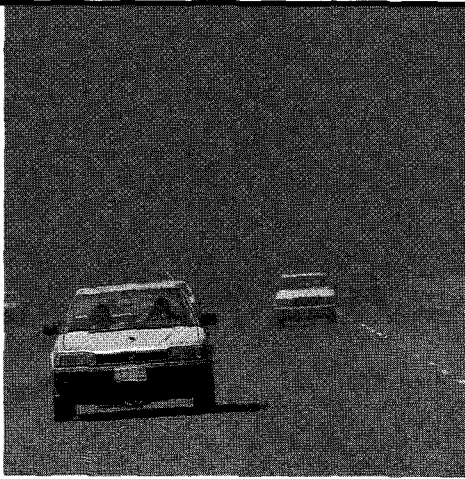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환경재난은 인간의 부주의와 환경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걸프전에서의 페르시아만 기름 유출과 유전 폭파는 의도적으로 환경재난을 유발하여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한 환경테러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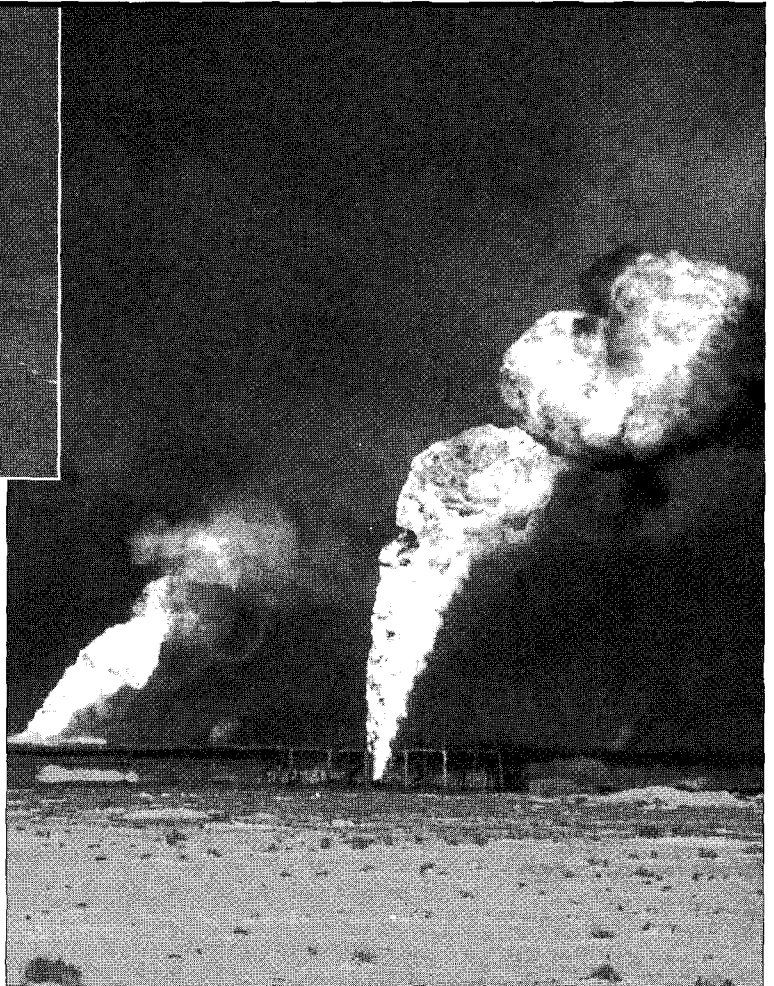
당시 어느 외국 신문은 걸프전을

'지구를 인질로 잡고 벌이는 전쟁'으로 비유할 만큼 이 전쟁은 엄청난 환경 피해를 유발하였다. 환경파괴와 오염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제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환경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 2의 제네바 협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



▲ 유전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쿠웨이트 도시 주변은 스모그로 가득 찼다.



▶ 스모그층이 너무 두꺼워 태양을 가려버렸다.